

#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7. 07. 18 [제337호]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합니다.

크렘린, 미국은 조건 없이 외교공관 반환해야

우크라이나-EU 정상회담, 유대 강화에 초점

벨라루스, 폭동 기도죄 수감 활동가 석방

S&P,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SOCAR)에 BB등급 부여

우즈베키스탄 정부, 출국비자 폐지 가능성 논의

라흐몬 대통령, 여성들의 히잡 착용 금지 재차 촉구



## 크렘린, 미국은 조건 없이 외교공관 반환해야

크렘린은 7월 14일, 미국이 점유 중인 러시아 외교 자산의 반환과 관련된 어떤 전제조건도 거부한다고 경고하였다. 그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세바스티안 고르카(S. Gorka)의 CNN 뉴스 코멘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고르카의 논평은 러시아 외교공관 반환 문제를 러시아가 시리아 서남부 지역의 미-러간 정전협정을 준수하는가 여부에 연계시킨다는 것이었다. 크렘린 공보관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외교자산의 러시아 반환은 어떤 조건에도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완전히 국제법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뉴욕과 메릴랜드의 러시아 외교공관 점유 그리고 그가 스파이라고 말한 35명의 러시아 외교관의 추방을 명령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차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교관 추방과 공관 점유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스코프 공보관과 러시아 외교부는 크렘린의 인내심에 한계에 달했으며, 만약 7월 17일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에서 점유 공관의 반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외교관의 추방 및 미국 자산에 대한 점유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구)

[기사 원본 보기\[2017-07-15, RFERL\]](#)

## 우크라이나-EU 정상회담, 유대 강화에 초점

지난 7월 13일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양측은 협정의 최종 승인 및 지난 달 비자면제 여행허가 결정에 따른 관계 강화에 환호를 보냈다. 회담 개막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6월 11일에 우크라이나인들이 EU 비자면제 여행이라는 자유를 맛보았다고 하면서, 생체인식 여권소지자 1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비자면제 여행권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경제제재 연장에 대해 EU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아울러 러시아가 민스크협약 하에 완전히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 제재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EU가 공식화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키예프가 부패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7월 11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의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그것은 9월 1일에 효력이 발휘될 것이다. 2014년 이후 연합협정의 많은 부분이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협정의 채택은 외교정책, 법, 교육, 과학 및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EU-우크라이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라고 부르는 협정의 경제부분은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EU 시장 개방을 의도하고 있으며, 법과 규제를 조화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 경제를 EU기준에 연계시킬 것이다. (기계형)

[기사 원본 보기\[2017-07-13, RFERL\]](#)





## S&P,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SOCAR)에 BB등급 부여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앳앤푸어스(S&P)는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SOCAR)의 장기 신용등급으로 ‘부정적 관찰대상(Credit Watch Negative)’인 “BB”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S&P는 SOCAR에 부정적 관찰대상 등급을 부여한 것은 2016년 SOCAR의 지표들이 정부 지원 여부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자본 지출, 유동성 관리 등에 대한 SOCAR의 재무 정책 및 관리 접근법에 대한 투명성 결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S&P는 가스 및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SOCAR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더 나아가 S&P 측은 “우리는 정부가 회사의 재무, 자본 지출 및 위험관리 관행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SOCAR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역시 필요하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박영은)

[기사 원본 보기\[2017-07-15, APA\]](#)

## 벨라루스, 폭동 기도죄 수감 활동가 석방

대량살상무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4명의 벨라루스 활동가들이 민스크 당국에 의해 석방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3명의 용의자가 석방된 그 이튿날이었다. RFE/RL 벨라루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8일에 석방된 4명의 활동가는 블라디미르 루미안차우, 치무르 파슈케비치, 알레스 야우다하, 빅타르 다닐라우다.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3명의 활동가는 시아레 스트리불스키, 알릭산드르 짐니츠키, 올라디미르 표도로프로, 이동제한에 합의한 후 6월 27일에 석방되었다.

지난 3월 벨라루스 국가안보위원회(Belarusian State Security Committee) 당국은 대규모 폭동을 계획한 혐의로 화이트 리전(White Legion), 영 프론트(Young Front) 단체 회원 26명을 구속했다. 수감은 일부 단체가 국가체제를 불안하게 만들어 혁명을 기획했다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부 억류자에 대한 기소는 차후 중단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7명의 수감자들은 6월 28일 구금된 상태다. (심지은)

[기사 원본 보기 \[2017-06-28, RFERL\]](#)





## 우즈베키스탄 정부, 출국비자 폐지 가능성 논의

우즈베키스탄의 샤프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ayev) 대통령이 새로운 여권 도입을 시사하는 명령을 행정부에 하달했다. 7월 13일 자 우즈베키스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은 새로운 출국 절차 도입을 위한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즈베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출국 비자가 폐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일반 민간 여권"으로 알려진 단일 신원 확인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서에는 출국 허가서 혹은 출국 비자를 첨부하는 특별 칸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출국 비자 시스템은 잔존하는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우즈베크 국민들의 국외 활동을 통제해왔다. 또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며 공무원 불법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7월 8일 압둘라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외무 장관과 그 외 정부 관료들은 출국 비자 시스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선출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가 개방 목표 중 하나로 풀이된다. (신보람)

[기사 원본 보기 \[2017-07-13, Radio Liberty\]](#)

## 라흐몬 대통령, 여성들의 히잡 착용 금지 재차 촉구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수염을 기르지 말고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종교적 의식과 전통에 관한 10주년 법 제정 기념식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여성들이 히잡과 검은 색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국가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남성들의 수염이 종교적 성향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타지크 인들이 "마음을 다해 신을 사랑"하기를 촉구하고 외부적 특성을 통해 "종교적 의"를 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시민들이 소위 "타지크의 진실한 문화"를 수호해야 하며, "이방의 문화와 전통"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타지키스탄 정부는 850만 명의 타지크 인들이 세속적 원칙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타지키스탄은 여학생들이 얼굴에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며, 많은 타지크 인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에 참여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해외 이슬람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던 수천 명의 학생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정세진)

[기사 원본 보기 \[2017-07-11, RFERL\]](#)

